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격화

산업부 “글로벌 3대 강국 도전”

연구개발·산업 현장 실증 지원 확대
MAX 얼라이언스 중심 생태계 강화
관계부처·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력

산업통상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개발과 실증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에이로봇, 로보로스, 유일로보틱스, 테슬로, 하이젠RNM 등 기업과 서울대학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6년에는 4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상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



‘올해의 로봇(Best Robot)’으로 선정된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모습 /현대차그룹

시뮬레이션 플랫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니트리 등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양산형 휴머노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협력을 통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업 간 공동개발과 기술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2026년 CES 2026에서는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의 작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 AI 모델 개발 기업, 부품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휴머노이드 학습용 데이터 확보·활용 ▲액추에이

터·로봇핸드 등 핵심부품 기술 내재화 ▲산업 현장 실증 확대 ▲산·학·연 협력 생태계 강화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정책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R&D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수라학교’서 한식인재 육성

하반기 민관 협력형 학교 운영
해외인재 유치 설명회 개최

정부가 한식 및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오르는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한식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 안건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 설립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해 한식 기초와 조리기술, 외식 경영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재외공관과 해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한편 미국, 이탈리아 등지의 해외 요리학교에서도 한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는 정부 인증 수료증을 발급하고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비자 제도도 관계 부처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2025 한식 컨퍼런스 워크숍’ /뉴시스

해 마련한다.

정부는 이어 세계 미식 시장을 선도할 고급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해 2027년 프리미엄 수라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 프랑스 앙스티튜 라이프 등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해외 요리학교 사례를 참고해 한식 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게임 종료 은폐 ‘웹젠’ 제재

종료 후 신규 아이템 출시·판매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출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

반으로 제작된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로, 웹젠은 한국 내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일본 Aiming사와 체결하고 2023년 10월26일부터 서비스해왔다. 일반 RPG와 달리 1~3주 간격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출시되면 확률형 뽑기 방식으로 획득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

며, 7월 30일 내부적으로 종료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이와 관련한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서비스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해당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 서비스 종료 계획은 8월 22일야 공지됐으며, 게임은 10월 17일 최종 종료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S&P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감 멤버’ 선정

한전, 글로벌 ESG경영 인정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표
전력 생산·수요 분산 등 추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기업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지속가능성 연감 멤버)’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CSA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약 9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 중 848개 기업만이 지속가능성 연감에 등재됐다.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Enel, Iberdrola, Acciona 등 26개 글로벌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76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전은 2020년 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ESG 경영 현안과 전략을 심의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및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전력 생산·수요 분산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동철 사장의 안전 중심 경영 기조 아래 2025년 ‘중대재해 ZER0’를 기록했고, 공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앞으로도 ESG 경영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40대 소득 늘었으나 삶 만족도 떨어졌다

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분석
건강·사회관계·정서 지표 ‘악화’

사회의 허리에 비유되는 40대의 자살률과 비만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사회단체 참여율과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과 소득 등 경제지표는 개선된 반면, 건강·사회관계·정서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명 이하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부터 반등 추세에 있다.

특히 40대(+4.7명)와 50대(+4.0명) 등 중장년층에서 증가 폭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 자살률이 41.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건강 지표인 비만율도 악화했다. 2024년 비만율은 38.1%로 전년(37.2%)보다 0.9%포인트(p) 오르며

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0년(38.3%)에 근접했다.

이 중 40대는 비만율이 6.4%p 늘어난 연령대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 일 부탁’이나 ‘이야기 상대’ 등 돌봄 하 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남(35.7%)은 2년 전보다 0.5%p 증가한 반면 여(30.5%)는 0.5%p 감소했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52.3%로 5.9%p 감소했다. 특히 40대(-8.9%p)와 30대(-8.3%p)에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는데,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우울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정서(10점 만점)는 2023년 3.1점에서 2024년 3.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돈 삼겹·목살, 최대 50% 할인해요”

한돈자조금관리위, 한 달간 혜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농협유통채널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3월 한 달간 한돈 삼겹살과 목살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에서 이달 17일까지 기획전을 통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516개소한돈인증음식점·정육점에서는 22일까지



지난달 하순 서울 동대문광장에서 열린 삼겹살 할인행사. /한돈자조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 인증점과 자세한 내용은 한돈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